

# ‘Love 米’

‘대슬맑은 담양쌀’ 금상 수상  
전남 5개 브랜드 ‘고품질’ 선정

농협전남지역본부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단체 협의회가 주관하는 올해 ‘전국 12대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에서 지역 내 5개 농협의 브랜드 쌀이 상을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담양군 금성농협의 ‘대슬맑은 담양쌀’은 금상을, 함평군농협의 ‘나비쌀’과 강진군농협의 ‘프리미엄 호평’은 은상을 각각 받았다.

해남군 옥전농협 ‘한눈에 반한쌀’과 고흥군 흥양농협 ‘수호천사 건강미’는 동상을 수상했다.

전국 고품질 브랜드 쌀 평가는 2003년부터 전국에서 생산된 그 해의 브랜드 쌀을 대상으로 소비자 단체가 평가해 시상하고 있다.

지난해 뽑혔던 보성군농협 ‘녹차미인 보성쌀’과 장흥군농협 ‘아르미’ 쌀은 2년 연속 고품질 브랜드 쌀에 선정되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Love 米’ 마크를 받아 올해 평가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Love 米’ 인증을 받은 전남도내 브랜드 쌀은 ‘왕건이 탐낸 쌀’(2007년), ‘드림생미’(2008년), ‘한눈에 반한 쌀’(2010년) 등 총 9개가 됐다.

박중수 본부장은 “한국 소비자단체가 매년 평가하고 발표하는 고품질 브랜드 쌀은 생산되는 전 공정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소비자의 입장에서 맛과 미질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고품질 브랜드 쌀이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광주농협 ‘친환경’ 결실

북구 100여농가 무농약 인증 획득

농협이 추진한 친환경농업육성이 결실을 맺었다.

24일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근)는 광주시 북구청과 광주농협(조합장 한진섭)이 협력해 추진한 친환경농업육성으로 올해 광주시 북구 100여명의 농가가 무농약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광주농협이 주관해 추진한 이번 ‘친환경 수도작 재배 자재지원 및 인증지원 사업’은 총 2억 23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북구청이 1억 2000만원, 광주농협이 6200만원, 농협중앙회가 4100만원의 사업비를 각각 분담·지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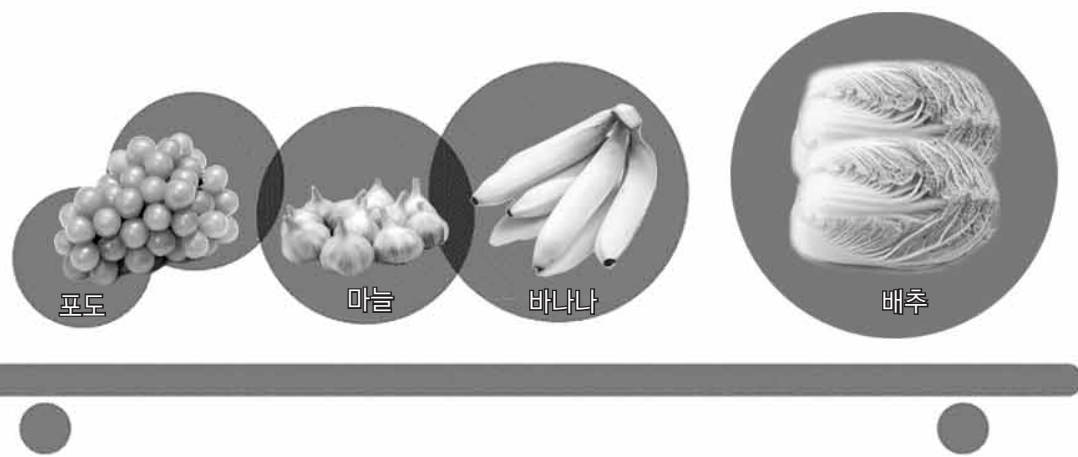
올해 사업으로 인증을 취득한 농가가 생산한 쌀은 광주 농협 통합RPC를 통해 전량 광주 관내 학교급식용으로 공급된다. 또 무농약 인증을 취득한 농가가 생산한 쌀은 일반 쌀보다 약 1만 8000원(40kg기준) 정도 높은 가격에 수매돼 농가 소득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근 본부장은 “광주시민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한 사업과 농업인 실익증진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농산물, 싸고 좋으면 원산지 안따져”



## 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35% “품질 최우선”…국내산 선호도 갈수록 감소

76% “국내산 더 안전”…39% “은퇴후 귀농 할 것”

도시 거주자들은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상관없이 품질이 좋고 가격이 싼 농산물을 구입하겠다는 의사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하 농경연)이 도시민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 22일 내놓은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5.4%가 ‘원산지와 관계없이 품질을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3명중 1명 이상이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품질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뜻이다.

또 응답자의 35.1%는 ‘국산이 수입산

보다 훨씬 비싸면 수입산을 살 것’이라고 밝혔으며, ‘국산이 수입산보다 비싸도 우리 농산물을 살 것’이라는 한 경우는 29.5%에 그쳤다. 국산을 선택하겠다는 응답은 2009년(37.0%), 2012년(34.1%)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였다.

응답자의 67.2%는 ‘시장이 개방될수록 소비자에게 유리할 것’이라는 인식을 보였으나 ‘농산물시장이 지나치게 개방돼 있으며’ (75.7%) ‘더 개방되면 농가와 농촌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 (87.4%)인 만큼 ‘국가가 국민의 식량안보를 위해

최대한 농업을 보호하고 지킬 책임이 있다’ (93.5%)는 답변도 적지 않았다.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위해 세금을 추가 부담할 의사가 있다’는 응답 (50.9%)은 지난해 (60.1%)보다 줄었으나 2009년(50.3%)과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농촌복지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54.2%)은 지난해 (50.1%)보다 늘었으나 농촌복지 예산확대를 위해 추가비용을 부담하겠다는 답은 10명 중 3명 (32.2%)에 그치는 등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최근 5년간 농식품 안전성에 대해서는 ‘개선되고 있다’ (60.6%)는 의견이 많았으며, 우리 농산물이 수입산보다 생산 (75.5%)·유통 (65.7%) 단계에서 더 안전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 후 귀농·귀촌 의향이 있는 응답자 (39.0%)는 2009년 (53.0%)보다 줄어 들었으며, 귀농시 가장 필요한 것으로는

‘소득원’(29.1%)을 들었다. 자영업자와 농촌생활 유경험자가 귀농·귀촌 의향이 많았다. 귀농 의향자가 줄어든 것은 농산물 시장 개방 등으로 농촌 생활이 더 팍팍해질가능성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농업인 1209명에 대해서도 실시됐는데, 농가경영의 위협요인으로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확대’ (17.6%), ‘농업 생산비 증가’ (14.8%), ‘일손 부족’ (13.5%), ‘불합리한 유통구조와 수급불안정’ (12.2%) 등이 꼽혔다.

농업인들은 ‘농산물 가격’ (19.4%), ‘소득안정대책’ (12.5%), ‘쌀 관세화 유예종료’ (10.8%), ‘창조경제’ (10.0%) 등에 관심이 많았으며, 직업만족도는 53.27점으로 지난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우리 국민 평균 64.1점보다 10.9점 낮았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 바다도 뽕뽕...양식장 피해 우려

2주만에 1~7도 ↓...수산과학원, 실시간 수온 정보 제공

지난주부터 우리나라 연안과 내만의 수온이 갑자기 낮아져 주변 양식장에 피해가 날 것으로 우려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지난 23일 수온 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산시 가로림만, 보령시 천수만 입구와 여수시 신월 등 서해와 남해 내만을 중심으로 이달 12일에 비해 수온이 1~7도 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인성 국립 수산과학원 수온 담당 연구사는 “최근 한반도에 닥친 이상한 파로 인해 수온이 갑자기 낮아진 것으로 보인다”며 “해양은 대륙에 비해 비

열이 크기 때문에 한파는 어제부터 풀릴 전망이다지만, 바닷물 온도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저수온이 일정기간 지속되면 양식생물의 체액이 결빙돼 세포 팽창과 균형 상실에 생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온수성 어종은 대량 폐사할 수도 있다.

서영상 수산해양종합정보과장은 “해양자료 속보와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 국립수산과학원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수온 정보를 참고해 양식생물의 피해를 막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가을 무 생산량 25% ‘뚝’

지난해 소비부진에 재배면적 줄어...배추는 10% ↑

지난해 작황이 좋아 가격이 대폭 내려갔던 영향으로 올해 가을무 생산량이 작년보다 25% 가량 줄었다.

통계청이 지난 22일 발표한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가을무 생산량은 48만 2000t으로 1년 전보다 24.5% 감소했다. 일반무는 23.6%, 총각무는 38.1% 각각 줄었다.

가을무는 지난해 기상 여건 호조 등으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떨어진데다 소비 부진도 겹쳐 올해 재배면적 (5498ha)이 지난(7532ha)보다 27.0% 줄어든 것이 생산량 하락에 영향을 미

쳤다. 2012년 1kg당 757원이던 가을무 도매 가격은 지난해 1kg당 468원으로 38.2% 떨어졌다. 다만 강수량과 기온 등 기상여건이 좋아 가을무의 10a당 생산량은 작년(8483kg)보다 올해(8771kg) 3.4% 증가했다.

반면 가을배추는 올해 재배면적이 1만5233ha로 작년(1만5095ha)보다 0.9% 늘어나면서 생산량도 169만8000t으로 작년(153만6000t) 대비 10.6% 늘었다. 가을배추 10a 생산량도 1만150kg으로 작년(1만174kg)보다 9.6% 증가했다. /김대성기자 bigkim@

## 전원 주택지 매매

- 화순군(읍) 다지리 산 12-7
- 328평, 33가구중 1
- 택지조성 공사중
- 2015년 5월 완공 예정
- 조성 후 평당 80만원 예상
- 매매가 1억 3120만원

주인직매 H. 010-3605-5000

## 빌라 3층 34평 매매

- 남구 월산동 110-18번지
- 광천 파크 빌라 3층 304호

- 2013년 준공, 5층중 3층, 전남향
- 시세 및 감정가 1억 9천만원
- 매매가 1억 7천만원(일시불)
- 즉시 입주가, 내부 깨끗함

주인직매 H. 010-3180-8900

특수경매 배우면서  
단독·공동 투자 하실 분!



경매  
투자

- ▶ 특수비법 배우실 분!
- 임장/교육비 등 1,200만원 단, 상담후 본사 결정
- ▶ 낙찰물건에 투자하실 분!
- ▶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주) 오 천 경 매 H.010-3605-5000